

PP, 무려 140달러 추락 “혼수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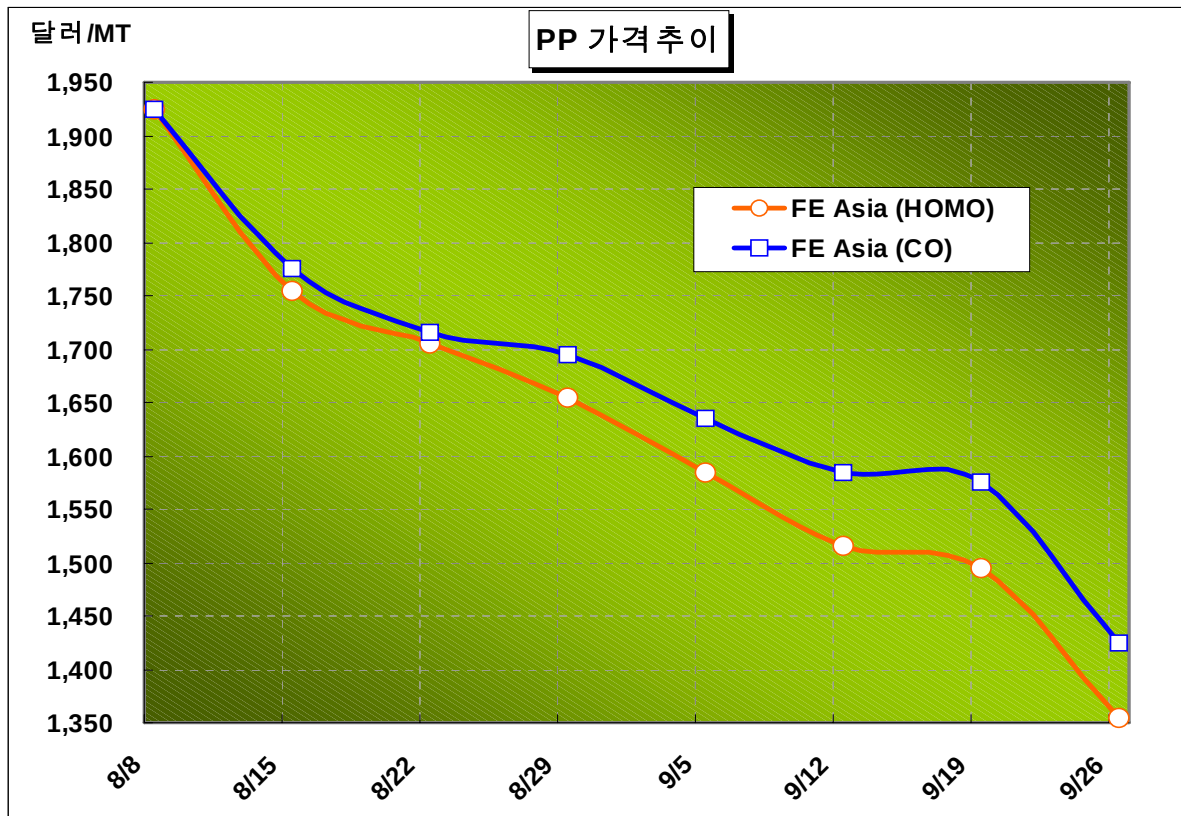
CFR FE Asia 1350-1360달러 형성 ... 중국 연휴 끝나면 상승 가능

PP 가격은 9월 넷째 주에 CFR FE Asia 톤당 1355달러로 140달러 추락했다.

아시아 PP(Polypropylene)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PP 생산기업들의 연이은 가격 인하 움직임의 영향으로 1400달러가 붕괴되며 2008년 최저치를 갱신했다.

국제유가는 한때 121달러까지 상승했으나 미국 국회의 반대로 공적자금 투입이 무산되자 다시 107달러로 하락하면서 프로필렌 및 프로필렌 유도제품의 폭락을 견인했다.

여기에 10월 중국의 국경일(National Day)과 이슬람 연휴(Ramadan) 동안 재고가 쌓일 것을 우려해 PP 생산 기업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하한 것도 PP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의 PP 가격은 Raffia/Injection 그레이드가 1400-1410달러로 90달러, Block Copolymer 그레이드가 1420-1430달러로 60달러 급락하고 IPP Film 그레이드가 1420-1430달러, BOPP 그레이드가 1400-1410달러로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산 10월 인도물량은 CFR 1300달러, 한국산은 13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유통기업과 최종수요처들이 국경일 이후 복귀하면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연숙 기자>

<화학저널 2008/09/30>